

NAFTA타결에 따른 대 중미 해외직접투자전략

— Mexico를 중심으로

오 부 근

Boo, Geun - Oh

목 차

- 1장 : 논문의 개요
 - 2장 :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장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 1. 전체 해외직접투자 현황
 - 4장 : NAFTA타결과 멕시코 투자환경의 변화
 - 1. 멕시코 시장의 특성 및 중요성
 - 2. 투자활성화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조치
 - 3. 멕시코 시장의 불안정성
 - 5장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예의 비교우위적 접근
 - 1. 국내기업과 멕시코기업과의 경쟁
 - 2.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연관성
 - 3. 외국기업의 대NAFTA시장 진출 특성 및 시사점
 - (1) 일본기업의 예
 - (2) 프랑스, 독일의 투자진출동향 및 북미시장 관리전략
 - 4.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전략적 방향
 - (1) 지구적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
 - (2) 전략적 생산기지화
 - (3) 전략적 틈새시장으로서의 멕시코 투자
 - (4) 정부의 정책 과제
 - 6장 : 요약 및 결론
- <참고 문헌>
-

〈 표 목 차 〉

(표 1) 한국, 일본, 대만의 해외투자규모 비교	126(8)
(표 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	126(8)
(표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의 변화 추이	127(9)
(표 4)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127(9)
(표 5)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분포	128(10)
(표 6) 아시아 지역의 업종별 분포	128(10)
(표 7) 북미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분포	128(10)
(표 8) 제조업부문의 업종별분포의 변화추이	129(11)
(표 9) 최근 4년간 멕시코의 FDI	131(13)
(표 10) 최근 4년간 부문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31(13)
(표 11) 제조업 부문별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연간 기준)	132(14)
(표 12) NAFTA에 따른 멕시코의 무관세 수출품목	134(16)
(표 13) 멕시코, 선진국, 아시아 NICs의 임금수준 비교	139(21)

〈 그림 목 차 〉

(그림 1)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125(7)
------------------------------	--------

1장 : 논문의 개요

WTO 출범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라는 추세속에서도 지역주의 즉 블럭화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EU의 결성, APEC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합의, NAFTA의 결성 등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통합의 움직임중에서도 특히 NAFTA 성립은 국내기업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NAFTA성립에 따라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국가들은 EU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NICS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 신발류, 가전제품 등에서 NAFTA의 일원인 멕시코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시장에서 보다 어려운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미·일의 무역분쟁 및 엔화의 초강세로 인한 단기적인 반사이익으로 전자, 철강, 반도체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덤핑공세와 시장개방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통합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쟁의 증가는 국내기업의 대 NAFTA 직접투자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듯 지역통합의 증가는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러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기업의 모국에 주는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즉, 해외투자는 투자유치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도 가져오지만 동시에 본사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도 가져온다. 따라서 최단의 지역통합은 국제투자의 패턴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투자유치국과 본사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우위론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위치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반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비교우위측면에서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은 저임금개도국에 투자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는 대선진국직접투자를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직접투자형태는 보다 광범위하게 기업의 비교우위와 산업적 요소, 투자유치국(또는 지역)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 NAFTA 직접투자 역시, 기업의 비교우위, 부분적으로는 국내의 특유우위와 부분적으로는 투자유치국의 특유우위에 의한 것으로 대 NAFTA 직접투자의 특징과 구성은 이러한 국가특유우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나라 대 북미 직접투자의 형태와 결정요소를 검토하고, NAFTA 결성 이후의 우리나라의 대 NAFTA 직접투자의 요인과 형태를 비교우위의 변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대 NAFTA 투자 추이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전략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해외 투자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예컨대, 노동집약적 해외직접투자는 산업공동화와 역수입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장기적인 대응책의 시사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통계치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NAFTA 타결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서 대 NAFTA·직접투자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장 :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와 대만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미국과 EC의 의 수입규제로 인해 수출에 의존한 성장이 더 이상 곤란하게 되자 선진국에 현지공장을 세우게 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투자행태는 기존의 선진국 MNC의 해외직접투자와 비교해 볼 때 역투자(Reversal Investment)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가정하고 있는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자본이동의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조직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에 의해 설명한 학자들이 하이머(Hymer, 1976)와 킨들버거(Kindlerberger, 1969)이다. 이들은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할 때 나타나는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특유의 우위를 보유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독점적 우위요소로는 특허기술, 제품차별화, 유통경로의 장악 및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개도국의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은 공정기술상의 약간의 우위요소를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어떤 독점적 우위요소도 대선진국 직접투자에서 우위요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요소 및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내부화이익이 비용보다 크기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내부화 이론이다.(Buckley and Casson, 1976), (Rugman, 1980,1982) (Teece, 1982)). 내부화이론에 의하면, 기술, 마케팅 노하우, 브랜드 이미지, 판권법 등과 같은 무형자산은 시장의 형성이 어렵고, 지식누출의 위험성과 지식의 외부성을 경제화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시장을 통한 거래는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내부시장 거래가 보다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부화이론 역시 개도국의 역투자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무역환경의 변화와 무역장벽의 구축과 같은 현지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한 시장 불완전성을 회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기업의 내부화동기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특유요소인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숙표준화된 제품을 저가격 위주로 수출하여 왔고 외부시장을 내부화할 능력과 의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투자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업의 경쟁적 우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행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독점적 우위이론과 내부화이론에 더하여 지역특유우위를 결합하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 중 어느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절충이론은 부분적으로 역투자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Dunning, 1977), (원종근, 1986)). 미국과 EU의 수입규제, 현지시장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및 신속한 피드백, 현지 주정부들의 투자유인책 등과 같은 지역특유요인들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대 미국, EU 현지공장 설립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이론은 역투자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를 전제하고 있고, 지역특유우위요소는 투자지역 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도국, 특히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행태의 특징적인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한국기업의 대선진국직접투자를 기업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기존에 확보된 수출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도국기업의 국제화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설명이다.(Jun, 1987)

즉, OEM 수출이나 현지판매법인에 의한 수출과 같은 수출단계보다 단지 자원투입이 더 많다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는 해외마케팅의 연장으로서 해외투자를 이해하는 구조적 시장방어론적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개도국의 대선진국투자를 시장진출방법간의 경제성 비교결과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기업전반의 생존차원에서 이뤄진 수출연장선상의 의사결정으로 이해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할만한 독점적 우위가 없더라도 기존의 의사결정내용, 전략을 쉽게 수정할 수 없는 기업의 한계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국내기업은 고정비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하여 대규모로 공장을 세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수출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요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동율의 급격한 저하는 기업 조직전체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진국에 직접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대량생산에 의한 저원가전략”의 성장전략을 쉽게 수정할 수 없고, 시장다변화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적 우위가 없더라도 현지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에 따른 지구적 경쟁의 증가와 지역통합으로 인해 기존과 다른 경쟁 환경에 직면한 개도국기업의 경우에 해외직접투자는 보다 전략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Dunning(1988)의 절충이론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일

반적으로 기업특유우위를 보유한 기업이 부존요소, 우대정책 등의 지역특유우위를 갖고 있는 해외에 기업의 요소(제품, 기술, 경영 등)를 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기 보다 기업 안에서 내부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독점적 우위요소를 갖고 있지 못한 개도국기업의 역투자적 성격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지 못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이론의 한계점을 Dunning의 절충이론과 Kojima의 거시이론을 종합하여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행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시도도 있다. (Lee,1994)

이러한 설명은 개별국가의 경제발전과 투자단계와의 관계에 대해 주목한다. 즉, 개도국단계에서 선진국단계로 진입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는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획득하게 되고 이것이 해외직접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Dunning(1993)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킨 그의 절충이론에서 기업의 해외활동의 범위와 성격이 기업이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 노하우, 자원, 기타 경쟁기업이 갖지 못한 소득발생자산의 형태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우위의 성격이나 가치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한다.(Dunning(1993)) 또한 주어진 시점에서의 OLI(Ownership specific advantages, Locational specific advantage, Internalization specific advantage의 약자)변수는 상이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Dunning은 이러한 상이한 해외직접투자형태를 시장추구형, 자연자원 추구형, 전략자산 추구형, 효율추구형과 전략적 자산 추구형의 4가지 종류로 구별하였다. 물론 이러한 4가지 해외직접투자형태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해외생산은 초기에 시장추구전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요소부존이 바뀔 때(예를 들면 숙련노동력의 가용성) 투자기업은 해외자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전략적 자산추구형의 투자형태로 통합하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자원추구를 유인하는 요소부존과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시장진입장벽이나 정부의 무역장벽으로 시장추구형의 투자를 유인할 수도 있다. 즉 기업의 직접투자형태는 기업의 비교우위와 산업적 요소, 투자유치국(또는 지역)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기업의 해외생산형태는 본국 및 본사국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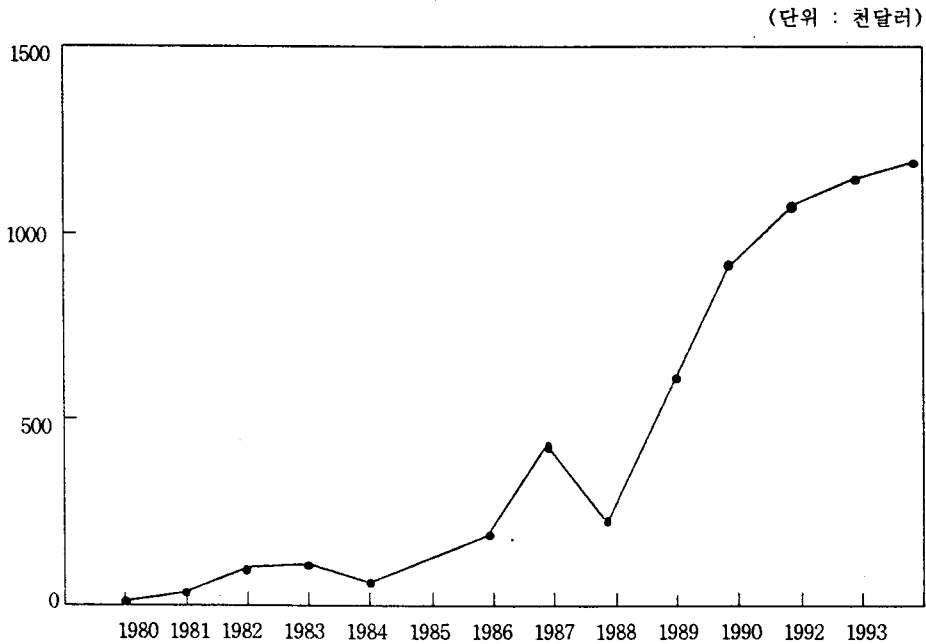
절충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추구형의 초기단계에 위치해 있고 다른 동기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장.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1. 전체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1968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 증가폭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1986년 해외투자제도의 규제완화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1990년대에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많게 되었다.

(그림 1)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1967~1993)



자료 : 해외투자통계연보, 한국은행

(그림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변화의 추이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해외투자의 도입시기(1968~1980)과 해외투자 집중기간(1981~1989), 최근의 투자재조정기간(1991~1995)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지역은 초기해외투자도입시기 23.9%, 해외투자 집중기간에 44.3%로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최근의 투자조정기간에는 대중국투

자금증으로 그 선두로서의 위치는 잃었지만 계속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일본에 비해서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GNP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일본의 70년대 초기수준과 비슷하며 최근 대만에 비해서도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표 1)

(표 1) 한국, 일본, 대만의 해외투자규모 비교

	한 국			일 본			대 만		
	GNP (10억불)	해외투자 (백만불)	비율 (%)	GNP (10억불)	해외투자 (10억불)	비율 (%)	GNP (10억불)	해외투자 (백만불)	비율 (%)
71	9.7	1.0	0.01	230.2	0.36	0.2	6.6	1.2	0.02
76	28.5	6.1	0.02	560.4	1.99	0.4	18.5	2.8	0.02
81	66.9	46.9	0.07	1166.0	4.92	0.4	46.6	60	0.13
86	102.8	110	0.01	1992.9	14.48	0.7	82.4	66	0.08
87	128.9	183	0.14	2423.1	19.52	0.8	115.2	704	0.61
88	172.6	151	0.09	2916.4	34.21	1.2	127.3	4120	3.24
89	211.2	305	0.14	2892.5	44.16	1.5	151.4	6951	4.59
90	238.0	820	0.34	2960.6	48.05	1.6	160.3	5418	3.57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국제수지 기준)
대만,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국제수지 기준)

각 단계에서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분포와 분포의 변화추이를 보면 (표 2, 3)과 같다.

(표 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
(1968~1993)

지 역	비 율(%)
아 시 아	39.3
북 미	39.3
중 동	1.6
오세아니아	3.7
유 럽	10.2
남 미	5.9

(표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의 변화 추이

	아시아	중 국	북 미	남 미	유 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1968~1980	37.7	14.3	23.9	3.1	4.1	16.8	1.8
1981~1989	21.7	14.1	44.3	4.6	6.8	0.7	8.6
1990~1993	38.1	5.7	36.6	3.5	4.4	2.3	2.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이 통계에 따르면 주로, 제조업, 광업,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세가지 주요동기.비용상의 잇점을 살리고 수입보호장벽에 대응한 산업재편성, 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 및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업무의 활성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형태가 앞서 언급한 구조적 시장방어론적 역투자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부문도 다시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30.1%), 1차금속(14.9%), 섬유 의복(13.8%) 석유화학(11.4%) 순으로 많다.(표 5)

(표 4)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1968~1993. 순투자 누계 총 5578 백만불)

제 조 업	49.3
무 역 업	23.8
광 업	11.4
수 산 업	2.2
임 업	1.5
건 설 업	1.4
부 동 산	2.6
운 송 업	0.5
기 타	7.4

(표 5)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분포
(1968~1993, 순투자누계 총 2749 백만불)

조립금속기계	30.1	목재가구	3.9
1 차 금 속	14.9	신발가죽	4.7
비금속광물	5.2	섬유 의복	13.8
석 유 화 학	11.4	음식료품	4.9
종 이 인 쇄	2.4	기 타	8.8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과 북미지역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표 6, 7)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조립금속, 기계장비 부분이 25.4%, 다음이 섬유 의복(17.6%) 석유화학(15.2%) 음식료품(7.9%) 신발가죽(7.8%)의 순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는 이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북미지역의 경우 1차금속의 비중이 42%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조립금속, 기계장비가 31.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보호장벽에 대한 시장접근적인 투자행태라고 볼 수 있다.

(표 6) 아시아 지역의 업종별 분포
(1968~1993, 순투자 누계 총 1441백만불)

조립금속,기계장비	25.4%	목 재 가 구	1.3%
섬유 의복	17.6%	종 이 인 쇄	2.6%
석유화학	15.2%	비금속광물	4.3%
음식료품	7.9%	기 타	12.3%
신발가죽	7.8%		

(표 7) 북미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분포
(1968~1993, 순투자 누계 총 720백만불)

1 차금속	42.0%
조립금속, 기계장치	31.5%
섬유 의복	15.4%
음식료품	6.3%
신발가죽	1.2%
목재가구	0.8%
종이인쇄	1.4%
기 타	4.7%

(표 8) 제조업부문의 업종별분포의 변화추이

(단위 : 백만불)

	1968~80	1981~89	1990~93
조립금속	1.3	20.3	32.6
1차금속	21.0	42.2	9.1
비금속광물	7.3	5.2	4.7
석유화학	22.9	6.5	12.2
종이인쇄	4.1	2.5	2.3
목재가구	0.7	1.6	4.4
신발가죽	4.3	3.4	4.9
섬유의복	3.1	11.8	14.6
음식료품	23.7	3.1	5.3
기타	11.6	3.4	9.9

제조업부문의 업종별 변화추이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8>에 의하면 조립금속산업과 섬유의복 분야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차금속산업에서는 80년대의 포철의 대미직접투자를 제외한다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추이는 1차산품등 자연자원추구형의 직접투자행태는 감소하는 반면에 초기의 시장접근형태와 경쟁력 상실업종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제3국 시장진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단순화할 때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개도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쟁력 상실 업종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제3국 시장진출동기가 주된 동기이며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및 현지시장 확대를 위한 동기가 주가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구조적 시장방어론적 역투자의 성격과 시장추구형의 초기단계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4장. NAFTA 타결과 멕시코 투자환경의 변화

1. 멕시코 시장의 특성 및 중요성

북미는 NAFTA의 발효를 통한 경제적인 상호의존성과 통합으로 인해 지구적 경제의 3대중심지(일본과 NICs, NAFTA, EU)중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입안자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지역간, 국가간 경계의 중요성이 점점 덜해지는 세계시장에서의 활동수행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즉 자연자원의 획득, 생산시설의 위치,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지, 분배 및 판매와 관련된 최적위치의 선정 등 경제활동의 최선의 비교우위를 추구하는 기업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미시장은 소비자 소득이나 경제의 통합면에서 인구 3억 5천만명을 가진 지배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마킬라도라 지역은 낮은 세율과 저렴한 노동력,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강한 진출유인을 갖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NAFTA의 세지역중 가장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젊은 노동력을 많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점에서 북미지역은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즉 시장의 중심은 미국으로서 멕시코 시장이나 캐나다 시장은 특정한 틈새를 제공하는 - 멕시코의 경우 조립활동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 캐나다의 경우 자연자원과 관광 등- 시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시장에서의 생산은 지역시장을 담당할 뿐 아니라 EU나 라틴아메리카 등과 같은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적인 특성을 갖는다.

둘째로, 계속된 개방화정책은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멕시코 시장은 인구가 많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멕시코의 노동력은 젊고 교육받은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숙련도의 증가와 저임금은 진출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지역적인 위치 또한 진출기업에게 매력적인 요소이다.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기타 라틴아메리카로의 수출에 유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2. 투자활성화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조치

대멕시코 해외투자는 1985~8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의 85억불에서 1985년의 150억불로 증가하였다. 1990년까지 누적투자잔액은 310억불, 1993년 현재 620억불에 달한다. 이는 대개도국 직접투자금액의 10%에 달한다.

이러한 투자 증가의 원천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의 결과이다¹⁾. 실제로 1993년, 1994년의 멕시코 국내투자는 경기침체와 노후자본재의 대체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자본투자의 순증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현재 해외투자의 2/3이상은 멕

1) Marie-France Houde Mexico and Foreign Investment, 10.

시코기업과의 합작투자형태이나 단독투자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멕시코가 해외직접투자의 매력적인 대상이 된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리나스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개혁덕분이다. 무역, 재정제도, 통신, 운송, 토지소유, 자연자원, 지적 재산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방적 자유화(Unilateral liberalis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사유화(privatisation) 로 요약되는 전략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킬라도라, Fideicomisos(소유권의 신뢰제도), 외국인투자규제완화의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고안했다. 최근 4년간 대멕시코 투자국 현황과 산업별 직접투자비중은 (표 9, 10, 11)와 같다. 살리나스 집권기간인 최근 4년간 매년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여 멕시코의 투자금액은 91년 현재 500억불에 달하고 있다(표 9). 증가한 해외직접투자유입액중 대부분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표 10). 제조업중에서도 금속,기계장비, 화학 및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11).

(표 9) 최근 4년간 멕시코의 FDI

(단위 : 백만불)

년도	1989	1990	1991	1992 ^P
연간투자금액	2,913.7	4,978.4	9,897.0	8,334.8
누 계 액	27,001.1	31,979.5	41,876.5	50,211.3

자료 : Secofi, General Direc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주 : P는 추정치

(표 10) 최근 4년간 부문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부 문	1989 ~ 1990		1993**	
	누적금액	비율(%)	누적금액	비율(%)
농업	164.70	0.90	0.02	0.00
광업	143.00	0.80	0.10	0.01
제조업	5,064.30	26.70	219.14	68.01
건설업	394.70	2.10	10.96	3.40
상업	1,805.00	9.50	13.95	4.33
교통,통신산업	5,229.60	27.60	0.09	0.03
금융서비스	3,267.30	17.20	1.04	0.32
서비스	2,873.90	15.20	77.03	23.90
총 계	18,942.50	100.00	322.24	100.00

자료 : Secofi, General Direc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주 : * 주식시장에의 투자는 포함하지 않음

** 추정치임

(표 11) 제조업 부문별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연간 기준)

(단위 : 백만불, %)

	1989	1990	1991	1989~91 누계	
				금 액	비 율
식품가공, 음료	212.0	182.0	275.0	669.0	21.3
섬유, 의류, 가죽	48.9	23.2	24.5	96.7	3.1
목재, 가구	19.9	4.6	4.1	28.6	0.9
제지, 인쇄	40.7	12.8	28.8	82.3	2.6
화학, 2차석유화학	254.6	484.9	162.2	901.6	28.7
비금속 광물	11.3	19.4	8.6	39.4	1.3
기초금속	16.0	16.0	20.5	52.6	1.7
금속, 기계장비	283.1	426.0	432.7	1,141.9	36.4
기타 제조업	95.9	24.0	7.1	126.9	4.0
제조업 합계	982.4	1,192.9	963.6	3,138.8	100.0

자료 : U.S. GAO,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sep. 1992.

1973년의 해외투자법안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었다면 1993년의 신해외투자법안은 해외투자촉진책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법안의 모호성과 복잡성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행정절차의 단순화가 고려된 명확한 법안으로 개정되었다. 이들 법안은 FDI의 수혜자인 진출국가와 함께 경쟁우위를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NAFTA에서의 자유화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금융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모든 부문을 개방하였다.

또한 과거 다른 국가의 해외직접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단독투자나 소유지분 49% 이상도 기업의 자산이 2천5백만불이상인 기업의 경우 국가해외투자위원회(CNIE)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 특정부문만 제외하고는 외국인들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창업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구입도 가능하다.

이때 창업허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 교육훈련, 기술에의 기여, 환경보호와 국가 생산능력에의 기여 등이다. UR에 따라 기업의 산출물과 관련된 의무사항(예를 들어, 현지부품사용, 무역수지, 제품의 판매지나 이전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NAFTA 발효를 목전에 둔 93년말에 멕시코가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할 의도는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을 강화한 NAFTA로 인해 역외국의 대 멕시코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점을 보완하여 멕시코가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러한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멕시코의 NAFTA의

참여가 배타적인 경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외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일종의 투자유인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멕시코 시장의 불안정성

과거에 멕시코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안정성이 지적되었다.

미국국경에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조립산업이 마킬라도라 경제지역을 사용하는 유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높은 이직율과 비신뢰성이 이러한 마킬라도라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인력의 지속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투자자들에게 있어 멕시코는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정성은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존재한다²⁾.

1994년에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폐소화에 대한 평가절하 기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되었다. 중앙은행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외환보유액의 고갈로 한계에 이르러 결국 폐소화가 40%나 대폭락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일본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현지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생산제품이나 조립제품이 북미시장 이외의 시장으로 수출되거나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는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활동의 범위나 금액이 훨씬 큰 미국시장이나 캐나다시장보다 시장 퇴출요인이 보다 강한 것임을 보여준다.

5장.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의 비교우위적 접근

1. 국내기업과 멕시코 기업과의 경쟁

멕시코 시장의 개방은 해외직접투자의 방향을 아시아 국가에서 멕시코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비교우위에 따르면 아시아에 쇠도했을 일본, 미국, 유럽의 해외직접투자가 멕시코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선진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93년

2) 1994년 1월 치아파스 주 농민반란, 3월 집권당 대통령후보 암살

기준 대개도국투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멕시코에서의 다양한 제품라인의 구축이 궁극적으로 미국시장으로 향하게 될 때 아시아국가의 수출품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개도국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멕시코는 앞서 언급한 멕시코의 투자유인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산업 육성노력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수출경쟁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하는 나라가 되었다. 비록 무역수지 적자가 93년 기준 200억불에 달하였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중간재, 자본재이며 이러한 중간재, 자본재 수입의 증가분이 상당부분 멕시코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서 멕시코의 대미수출상품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2년에 미국에 수출한 공산품 5,003개 품목중 멕시코와 수출 경합중인 품목은 3,927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이미 GSP 혜택을 누리던 품목이외에도 대부분이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우리나라 제품과 비슷한 품질수준을 갖춘 품목이므로 우리 수출제품과 치열한 수출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표 12).

(표 12) NAFTA에 따른 멕시코의 무관세 수출품목

	품 목 수	한국의 대미 수출액
1) 한국의 대미수출품목 중 멕시코의 대미수출품목	3,927 (78.5%)	14,419.8(88.8%)
2) 미국의 현행관세율이 '0' 인 품목	362 (7.2%)	2,899.2(17.9%)
3)멕시코의GSP 수혜품목	2,444 (48.9%)	6,032.5(37.2%)
4) 한,멕시코간 추가 수출 경합 대상품목 (4=1-2-3)	1,122 (22.4%)	5,488.1(33.8%)

자료 : 산업연구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 우리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1993.11

주 : ()안은 우리나라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특히 NA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이 저부가가치 산업의 생산설비 이전을 확대하고 있는것은 멕시코의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미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멕시코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제품, 전자, 화학, 자동차, 사무기기 등과 섬유류, 신발, 표준화된 전기전자제품, 철강, 피혁, 비철금속, 자동차 등 우리나라와 겹치는 많은부분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2.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연관성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는 논쟁의 대상이다. 전통적 이론모형들은 특정시장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할 때, 직접투자에 대한 해외생산여부의 결정은 해외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방법이 본국으로부터의 수출, 라이선스 또는 기술수출에 의한 접근 또는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이러한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게 되며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감소효과를 갖게된다.

그러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현지생산에 영향을 받게 되면 해외직접투자로 수출이 증대되는 보완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현지생산이 현지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킨다면, 그리고 현지생산이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등의 생산요소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면 시장점유율의 증가와 투입요소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다. 또한 현지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수출보완적 영업활동이 강화되거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어 제품자체의 전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모기업뿐 아니라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본국의 타기업의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다.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사에서 Svensson(1993)은 제3국에의 해외자회사의 수출이 모기업의 수출을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Blomstrom, Lipsey and Kulchycky(1988)는 1978년도와 1982년도 미국과 스웨덴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두나라에 있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³⁾.

한편 O'Sullivan의 경우 1960-1978년도까지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아일랜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다음년도의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Eaton & Tamura(1994)의 연구에서도 1985~1990년까지의 미국과 일본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출방정식과 해외투자방정식을 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이들 국가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상호보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개별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는 해외현지공장의 설립과 동시에 제품의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지판매법인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마케팅기능의 강화로 인해 늘어난 자사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생산을 늘릴 뿐 아니라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보다 많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기업의 수출과 해외현지공장의 생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현지생산과 수출이 거의 같게 변화하고 있어 현지생산이 본국으로

3) Magnus Blomstrom and Ari Kokko Home country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rom Sweden, 1994. p13

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고 있지 않다⁴⁾.

즉 해외현지공장 뿐 아니라 해외판매법인도 동시에 설립함으로써 현지시장에 대한 마케팅기능을 강화한데서 수출의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는 현지판매법인의 설립이 없이도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시장점유율을 증가시켜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및 원자재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⁵⁾.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기업규모에 비해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수출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보임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정의 보완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별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이 속한 산업전체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개도국투자, 대선진국 투자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수출이 해외직접투자를 증대 또는 유인하였는지를 알아본 회귀분석 결과 개별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수출이 많이 행해진 국가에 대하여 확보된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⁶⁾.

즉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용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NAFTA의 발효로 통합된 북미시장에서 멕시코 기업뿐만 아니라 멕시코 진출 다국적기업과 치열한 수출경쟁관계에 직면할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시장점유율을 지키는 좋은 방안이다.

3. 외국기업의 대 NAFTA시장 진출특성 및 시사점

(1) 일본기업의 예

일본기업의 경우 수백개의 일본기업이 협력하여 자연자원, 자동차 제조, 전자제품산업 등 특정산업을 표적화(targeting)하는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구축하였다. 또한 북미지역의 투자를 장기간에 걸친 지구적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장단기의 목표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서구기업과 같이 단기의 성과에 만족하기 보다 장기의 시장점유율의 획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 투자, 31.

5)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1994. 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p31

6) 김준동, 전개서, p 53

일본기업의 대북미 해외직접투자 행태는 전체적인 특정산업의 표적시장선택이 매우 선택적이며, 일본 다국적 기업간의 협조와 협력의 정도가 매우 높은 유형을 보이고, 지역간 경계, 국별경계에 상관없이 시장조건이 최선인 곳을 찾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합리성을 보였으며, 북미시장조건이 변함에 따라 부단히 적응해 나가는 장기전략적 투자 유형을 보이고, 해외직접투자이전에 정치적 변수나 경제적 변수를 주의깊게 고려하며 지역에 따라 투자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주요 R&D 활동이나 핵심첨단제조공정은 일본에서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지역에 따라 진입형태가 상이했다⁷⁾.

즉, 미국진출시에는 완전소유회사나 완전소유획득의 형태를 보였고 합작투자형태는 드물었다. 멕시코투자는 멕시코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요구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합작투자형태를 많이 보였다. 또한 투자지역은 북미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적인 분포를 보였다⁸⁾.

일본기업의 멕시코 투자행태는 주요활동은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조립활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지역에서의 일본기업의 활동은 미국시장을 위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본기업에게 있어서 미국이 지배적인 시장으로 남아있고 캐나다나 멕시코는 지역적인 시장이라는 것이다. 멕시코 국경지역에서의 투자는 대미국수출을 위한 것이다. 즉 일본기업의 투자동기는 수출과 현지판매로 인해 구축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방어적인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경우 북부 대미 접경지역인 마킬라도라에서의 투자이외에도 멕시코 중부지역에서도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활동은 멕시코 시장과 다른 라틴아메리카 시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

(2) 프랑스, 독일의 투자진출동향 및 북미시장 관리전략

프랑스는 멕시코를 북미시장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90년대 들어 멕시코 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89년말까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중 5위에 3%에 불과했던 멕시코 투자순위는 91년에 2위에 투자액의 7.5%에 달하는 등 급격히 투자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적 차원에서 진출대책을 수립하여 특히 환경, 서비스시장분야에서 진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멕시코에 대한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북미지역 경제권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는 한편 중간재 부품 등의 현지진출 강화를 통해 동 경제권내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맹 등을 강화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선진기술과 멕시코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권 형성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한다는 북미시장관리전략을

7) Lemay Joseph,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 America :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1993. p56.

8) Lemay Joseph,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 America :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 p 7.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는 자동차부문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정체결로 3개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운송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동시장공략의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Volkswagen, BMW, Benz 등 독일의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멕시코 및 캐나다의 현지공장 이용 및 멕시코의 추가적 조립공장 설립을 통해 북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4.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전략적 방향

(1) 지구적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

우리나라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동기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 시장방어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과 북미지역의 해외직접투자행태는 앞서 언급했듯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는 이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반해 북미지역의 경우는 선진국의 보호장벽에 대한 시장접근적인 투자행태를 보여준다.

한국무역협회가 섬유, 완구, 신발 3개 업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외진출동기의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잘 나타난다. 완구와 신발업종의 경우 생산비 절감 이 주된 동기로 나타났으며, 섬유산업은 생산비 절감 외에도 제 3국 수출거점, 현지시장 진출, 수입규제 회피 가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즉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쿼터 등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 3국 또는 현지시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⁹⁾.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추구형의 전략적 시야를 넓혀야 한다. 특히 멕시코투자는 지구적 시장침투(global market penetration)의 한 부분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지구적 시장침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 창출활동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의 핵심능력부문(Core Competence)은 국내에서 수행하고 기타 다른 부문은 지구적인 네트워크(network)하에서 구성해야 한다. 일본의 대 멕시코 투자가 이러한 경우로 연구개발 활동이 멕시코에서 수행된 경우는 드물고 또한 이루어 지더라도 핵심적인 R&D활동과 전체적인 R&D 활동의 조율은 일본에서 수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9)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 섬유, 신발, 완구산업 사례조사, 1994.4. p 7.

(2) 전략적 생산기지화

멕시코의 임금은 국내보다 크게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3). 그러나 단순히 멕시코의 저임을 이용한 생산비의 절감이라는 동기는 멕시코투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는 멕시코의 임금수준이 아시아 신흥공업국보다는 낮지만 동남아나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상대적인 저임의에도 목표시장 접근의 용이성, 물류비용, 금융조달 및 비용 등을 고려한 해외생산전략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멕시코 투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멕시코 시장외에도, 목표시장인 미국시장,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적절한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다.

(표 13) 멕시코, 선진국, 아시아 NICs의 임금수준 비교

선진국		개도국	
미국	17.02(10.0)	멕시코	2.35(1.38)
일본	16.16(9.49)	한국	4.93(2.90)
독일	25.94(15.2)	대만	5.19(3.05)
E U	19.92(11.7)	홍콩	3.89(2.29)
OECD	17.94(10.05)	싱가포르	5.00(2.94)

자료: Latin American Newsletters, Latin America Weekly Report, Nov. 11, 1993

주: ()안은 미국을 10으로 할 때의 상대적 임금수준

(3) 전략적 틈새시장으로서의 멕시코 투자

기존의 일본의 대 멕시코 투자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주로 생산비 절감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현지생산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AFTA발효에 따른 앞으로의 일본의 대 멕시코 투자형태는 종래 미국으로 직접투자하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멕시코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신규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기업들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용전자, 자동차, 사무용기기, 화학 등의 산업에서 멕시코 내수시장진입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현지생산뿐 아니라 마케팅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저부가가치 생산공정설비의 이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을 통한 수평계열화를 추구하고 있다. 멕시코 현지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시장침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망의 용이한 확보를 위해 민영화대상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¹⁰⁾.

주12) Clark W. Reynolds, L.Waverman, G. Bueno, The Dynamics of North American Trade and Investment,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18.

NAFTA 체결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위협받는 산업(의류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산업)과 관세철폐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산업(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기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산업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및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자산업의 경우 선진국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멕시코는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임금, 시장의 인접성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감소등이 투자의 유인이 되고 있다.

(4) 정부의 정책 과제

정부는 대멕시코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적인 투자제도의 개선외에 중소기업의 진출, 물류기능의 강화, 투자유망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대폭 강화된 Local content를 충족하기 위해 중소 부품업체의 진출이 대기업의 진출과 궤를 같이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과 직접적인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에 대해 해외투자자금, 대외협력기금 등의 지원과 수출보험 등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멕시코가 1994년부터 은행을 포함한 금융관련부문에 대한 개방을 시작하였으므로 현지금융의 활용과 금융비용 절감, 국내기업들의 무역금융, 현지 M&A 알선, 경영 및 투자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진출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세째로 멕시코 시장 뿐 아니라 북미시장전체, 중남미시장을 포함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제품을 원활하게 공급, 판매할 수 있는 종합물류센터의 지원이 요청된다. 일본기업의 경우 수백개의 일본기업이 협력하여 자연자원, 자동차 제조, 전자제품산업 등 특정산업을 표적화(targeting)하는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구축하였다. 국내기업들도 개별기업이 최적의 물류기능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의 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업체 상호간의 물류비용의 감소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제고 및 네트워크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요청된다.

6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에서 이론적인 연구결과들이 국내기업들에게는 뚜렷히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이론들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누계총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성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생산, 유통, 금융 등 모든 측면에서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촉진되어야 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국제수지의 개선 등이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절대적 규모에서나 GNP 대비 비중에서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시장방어적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기업의 독점적우위를 지니고 지구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해외직접투자 형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NAFTA 발효로 인하여 통합된 북미시장에서 수출이 심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전략적인 해외직접투자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해외투자 대상국의 결정에 있어서 생산비 절감 및 현지 및 인접지역의 시장규모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함으로서 실제 해외직접투자동기는 인건비 절감, 우회수출 및 무역특혜 활용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초기단계의 전략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미지역에서의 경쟁의 불리를 인식하면서도 전자산업에서 멕시코의 신규투자, 투자확대 및 기존지역에서의 생산확대를 강구하는 수준이고 특히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동차와 섬유산업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멕시코 시장의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경쟁기업들이 대부분 소유권특유우위를 갖춘 선진국기업이며, 진출동기자체가 멕시코의 지역특유우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므로 국내기업들은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별기업의 독점적 우위가 부재하므로 선택적인 특정산업의 표적시장진입, 국내 기업간의 협조와 자원의 공유, 지역간 경계, 국별경계에 상관없이 시장조건이 최선인 곳을 찾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합리성,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북미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적응해 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 지역의 비교우위를 최적화하는 기업의 핵심능력(Core Competence)과 주요 기능간의 네트워크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 헌 〉

- 김시중, 민윤기, 유지원,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박성택, 이광민, 김두현, 『가전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 산업연구원, 1994.
- 박태호, 나인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 현황, 경제효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1989.
- 전용욱, 한국의 대선진국 직접투자에 대한 소고 : 구조적 시장방어론, 국제경제연구 제 2권, 1991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 : 섬유, 신발, 완구산업 사례 조사』, 1994.4.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각년호.
- _____,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1993.12.31 현재)』, 1994.
- Chung H. Lee, Keun Lee, *A Transition economy and outward direct foreign investment*, Seoul. 1991.
- Clark W. Reynolds, L.Waverman, G. Bueno, *The Dynamics of North American Trade and Investment*,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Eaton, J. and Tamura, A.,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Japanese and U.S. Trade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NBER Working paper No. 4758, 1994.
- Edgar Ortiz, "NAFTA and Foreign Investment in Mexico", ed. Alan M. Rugman, *Foreign Investment and NAFTA*, USC press., 1994.
- Eduardo Borensztein, Jose De Gregorio, Lee Jong Hwa,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995.
- John H. Dunning, Rajneesh Narula, *Transpacific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 the record assessed*, Masstrich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Limburg, 1993.
- Joseph Lemay,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 America :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93.
- Magnus Blomstrom and Ari Kokko, "Home country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rom Swede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994.
- Marie-France Houde Mexico and Foreign Investment.

- Martin Feldstein, "Taxes, leverage and the national return on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994.
- Maxwell J. Fr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macroeconomic framework : some further findings*, University of Birmingham, 1993.
- Park, Eul Yong, Kim Ji Hong, *Foreign Direct Investment ofr industrial restructuring*, KDI, 1992.
- Robert E. Lipse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 Changes over three decad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992.
- U.S.DOC, *Survey of Current Business*, July 1993.
- U.S. GAO,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Sep., 1992